

보 도 설 명 자 료

('17.11.3)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후쿠시마’와 같은 모델인 日 40살 원전, 20년
운영 연장 신청” (11.3, 조선)

1. 기사내용

- 일본원자력발전이 도카이(東海) 제2원전의 운영기간 20년 연장을 일본원자력규제위에 신청하기로 했음
- 규제위원회의 연장심사가 통과하면 비등수형 원자로에 대한 첫 연장 승인이 됨
- 한국은 월성 1호기 수명이 다하기 전이라도 조기폐쇄

2. 동 기사에 '히' 산업부 입장

- 일본 원전의 최종적인 계속운전은 강화된 신규제기준에 따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설비투자과 지역수용성 확보 등이 필요해 실제적·절차적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
- 도카이 원전과 관련하여 일본내에서도, 대규모 자금조달 가능성과 수익성 확보 문제, 반경 30km내 1백만명에 가까운 인구에 대한 대피 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으로 계속운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보도(아사히신문 영문판, '17.10.27)도 나오고 있음
- 우리나라 월성 1호기는 지난 10.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전력수급 상황과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수원 등과 협의하여 폐지시기를 결정할 예정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종영 과장 (044-203-5320)